

더 쇼룸 The Showroom

김연용
토크쇼 | Talk Show
2020. 7.7 ~ 7.12

<토크쇼>는 <더 쇼룸>展과 연계된 작가와의 대화를 하나의 퍼포먼스 형식으로 전용한 해프닝 공연과 대화를 기록한 사운드 설치로 구성됩니다. 먼저 더 쇼룸의 참여 작가들은 사전에 비공개로 이루어진 작가와의 대화를 갖게 됩니다. 이후 퍼포먼스에서는 앞서 진행했던 작가와의 대화를 기록한 영상물을 함께 보면서 두 번째 작가와의 대화를 진행합니다. 첫 번째 진행하는 작가와의 대화는 실제 작가와의 대화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번째 진행하는 작가와의 대화를 위한 리허설이자 퍼포먼스의 재료가 됩니다. 두 번째 진행하는 작가와의 대화는 하나의 구성된 퍼포먼스로서 첫 번째 작가와의 대화를 의태하지만, 동시에 앞선 대화의 주석이자 원문으로 전화합니다. 두 개의 작가와의 대화에서 발생하는 말의 교환은 기록과 연습, 리허설과 복기를 통한 암묵적인 약속의 대화이지만, 서로 다른 미적 사건의 전개와 관객의 개입으로 인한 예외적 상황을 포함합니다. 서로의 발화에 대한 언어적 부연과 보충, 이동과 대체의 말들이 우연과 실패를 끊임없이 반복할 때, 결코 완결될 수 없는 말들의 연쇄는 어느 순간 대화의 불가능성으로 제시되고 그러한 불가능함을 서로가 인지할 때, 비로소 발현되는 연대의 가능태를 생성합니다.

전시기간 동안 보이게/들리게 될 작가와의 대화를 기록한 사운드 설치는 지난 4주 동안 진행된 작가들의 전시에서 선별한 작품 일부와 함께 전시기간 동안 제시됩니다. 여기서 각각의 그림들은 앞선 전시와 동일한 위치에 전시되고, 사운드 설치는 이러한 디스플레이된 전체 작품의 관계를 매개합니다. 전시가 기대어 있는 반복의 수사를 통한 <토크쇼>는 창작의 고유한 생산의 힘을 드러내는 개인전의 형식을 전용한 전시 전체를 복기하며, 작품과 전시의 경계에서 그 스스로의 생산 가치에 대해 질문합니다. 모든 것이 생산의 개념으로 대체된 끝없는 생산의 연옥에서 미술생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과 경험은 역설적으로 생산 개념의 상실과 대면합니다. 창작행위의 생산 가치가 무한히 유예되는 오늘날, 우리가 대면하는 세계의 모습에서 전시가 만들어내는 예술 생산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상실한 세계의 이미지와 말들, 실패한 사유와 실천들, 전도된 의미와 질료들과의 관계가 되어있을 것입니다.

전시연계 퍼포먼스 2020. 7. 12 4pm
협찬: 사무엘 스몰즈(Samuel Smalls)

*별도의 오프닝 행사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퍼포먼스 당일의 참여 관객은 20명 이내로 제한하며, 사전예약을 통해서만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약: 구글폼 링크